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11월 26일(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부드리스 리투아니아 국가안보보좌관 면담**  
- 한-리투아니아 양국 관계 강화 -  
-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오늘(11/26, 화) 오후 「케스투티스 부드리스(Kęstutis Budrys)」 리투아니아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러북 군사 협력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신 실장은 지난해 7월 빌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를 최초로 방문한 이래 양국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다방면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부드리스 보좌관이 최근 신임 외교장관으로 지명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부드리스 보좌관은 리투아니아로서도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관심이 크다면,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증진해 나가는 가운데, 안보, 국방, 방산, 사이버, 글로벌 현안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러북 협력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가 계속 발신될 수 있도록 양국 간은 물론, 한-EU 및 한-NATO 차원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끝>